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세인 루이스 총재, “미 경제 탄력적... 금리 계속 인상해야”
- WSJ: 미 반도체 법은 미국이 칩의 해외 이전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미국 금융]

- WSJ: 미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올해 주식 랠리 흔들려

[부동산]

- WSJ: 미 주택 판매 건수 12개월 연속 하락

[공급망]

- WSJ: 많은 기업들, 공급망 문제 해소된다

[에너지]

- WSJ: 러시아 제재에 따른 원유 부족이 휘발유 가격에도 여파 예상
- Reuters: 원유 가격 1% 이상 감소...글로벌 경제 성장 우려로

[글로벌 경제]

- WSJ: 글로벌 경제 이번 겨울 회복 기대감...불황 리스크는 여전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The Economist: 월마트를 보면 향후 미 소비력 약화될 듯
- CNN Business: 대형 소매 기업들 암울한 전망으로 월가 “술렁”
- CNN Business: 마이크로소프트, Nvidia, Nintendo와 10년 제휴
- CNBC: Target, 공급망 허브에 1억 달러 투자...전자상거래 시장에 베팅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Bullard Still Favors Hiking Rates to 5.375% as Fast as Possible

세인 루이스 총재, “미 경제가 탄력적이라 금리 계속 인상해야”

- 세인트루이스 연방 중앙은행 총재인 James Buzzard는 미 경제가 기대 이상보다 더욱 탄력적이라며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요구를 반복했다.
- 빨리 금리가 5.375%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 그는 이어 “미국 경제가 지난 6주 또는 8주 전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탄력적일 수 있다”며 “시장은 2022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경기 침체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했다며 올해 하반기 침체 가능성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WSJ: Chips Act Will Test Whether U.S. Can Reverse Semiconductor Exodus

미 반도체 법은 미국이 칩의 해외 이전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 연방 상무장관 Gina Raimondo는 오늘 목요일에 연방 행정부가 5백30억 규모의 칩 제조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할 계획인지 밝힐 예정이다. 다음 주에는 기업이 해당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번 공공 투자는 규모가 상당하다. Fabs로 불리는 칩 공장과 관련 연로, 장비 공장을 위한 제조 인센티브에 390억불, 연구 개발 및 인력 교육에 1백32억불이 투입된다.
- 별도의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있는데 제조 및 저리 장비에 대해 25%의 투자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이 반도체 법이 아시아의 현재의 반도체 위치와 중요성을 대체하는 노력보다는 미래 위기 또는 주요 공급망 중단에 대한 ‘해지’라는 미국의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WSJ: Rising Bond Yields Rattle 2023 Stock Rally

미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올해 주식 랠리 흔들려

-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이 지난달에 4%로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2008년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수치를 돌파한 수준이다.
- 이번 주 화요일에는 3.963%로 마감되어 12월의 저점 3.374%는 물론 2022년에 끝난 3.826%보다 높은 수준이다.
- 파생상품 시장에 따르면 거래자들은 이번 여름 증가율이 5.25%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는 그들은 약 4.9%의 최고 비율에 베팅했었다. 연준의 목표금리는 현재 4.5~4.75%다.
-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경로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며 "지난 2~3주 전 동안 역전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경제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WSJ 기사

[부동산]

WSJ: U.S. Home Sales Fall for 12th Straight Month

미 주택 판매 건수 12개월 연속 하락

- 미 전국 부동산협회의 이번 주 화요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주택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연율 4백만채로 전월 대비 0.7%, 12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2010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 계속되는 높은 모기지율과 경기 불확실성,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소식에 구매자들이 주택 매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하지만 모기지율이 지난해 최고치보다 떨어지면서 지난 1월 기존 소유 주택의 판매가 1.2% 증가하며 숨통이 트일 기미도 보이고 있다. 1월 미 전국 중위 기존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3% 오른 35만 9천 달러로 2012년 2월 이후 가장 작은 상승 폭을 보였다.

WSJ 기사

[공급망]**WSJ: Supply-Chain Headaches Ease for Many Companies****많은 기업들, 공급망 문제 해소된다**

- 물류의 혼잡스러움이 해소되고 해상 화물 비용이 떨어지고, 아시아 공장이 코비드 19 봉쇄령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다.
- 이에 따라 게임업체, 스포츠 웨어 회사 등 각종 완성품 수입업체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물론 일부 제조업체는 핵심 부품 부족으로 인해 생산 라인이 정체되고 생산성이 낮아져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에어컨 제조업체 Trane Technologies PLC의 CEO인 Dave Regnery는 “공급망 문제가 개선되었지만 정말 정상화되려면 몇 분기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에너지]**WSJ: Gas Prices Poised to Rise Again as Sanctions on Russia Take Effect****러시아 제재에 따른 원유 부족이 휘발유 가격에도 여파 예상**

- 이달 초부터 원유 정제품에 대한 서구의 제재가 시작되면서 미국과 서구가 휘발유를 생산하는 생산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컨설팅 회사인 Energy Aspects의 연구 책임자인 Amrita Sen은 올여름 휘발유는 매우 타이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Reuters: Oil falls more than 1% as growth fears offset China demand hopes

원유 가격 1% 이상 감소... 글로벌 경제 성장 우려로

- 어제 화요일 브렌트유가 1% 이상 하락했다. 글로벌 벤치마켓 브렌트유는 1.2% 즉, 1달러 2센트 줄어든 배럴당 83불 5센트를 기록했다.
- 서부 중질유는 0.2%, 즉 18센트 감소한 배럴당 76불 16센트로 거래되었다.
-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나타났고, 투자자들이 전날 상승분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다.

Reuters 기사

[글로벌 경제]

WSJ: Global Economy Shows Signs of Winter Resilience

글로벌 경제 이번 겨울 회복 기대감...불황 리스크는 여전

-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째에 접어들고 인플레이가 정점을 찍으면서 세계 경기 불황의 리스크가 줄어드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인다.
- 공급망 문제가 완화되면서 미국과 유로존, 영국의 기업 활동도 회복되고 있다. 원자재 및 부품 비용이 2020년 가을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상승했다. S&P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2월 종합생산지수는 8개월 만의 최고치인 50.2를 기록했다.
- 온화한 겨울 기후로 인해 유럽이 에너지 위기를 원활하게 넘기면서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다. IMF는 세계적 수요가 회복력을 보인 점, 인플레이 완화, 중국의 재개장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달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9%로 상향 조정했다.
- 다만 세계 중앙 은행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계획을 밝히고 강력한 고용 시장과 임금 압박으로 인해 올해 말 경기 불황이 닥칠 위험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The Economist: A warning from Walmart about the health of the American consumer

월마트를 보면 향후 미 소비력 약화될 듯

- 그동안 잘 나갔던 월마트의 향후 판매 성장을 예측하면, 이번 회계연도의 경우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낮은 2.5-3%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 홈디포 소매 체인도 비슷하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관련 소비자들이 홈디포에서 쓰는 비용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여기다 이들 소매업체의 임금은 상승하고 있다. 월마트의 경우 1월에 평균 시급을 17달러 50센트 이상으로 올렸다. 이로 인해 10억달러가 추가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홈디포도 임금 인상으로 10억달러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더 큰 우려는 소비자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팬데믹 연방정부 현금 지급에 따른 소비자들의 추가 저축액 중에 3분의 1을 이미 소진했고, 올해 말까지 다른 3분의 1을 소비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예상하고 있다. 소매업체들도 소비자들이 쇼핑을 중단하지 않도록 이제는 제품 가격 인상에 조심하고 있다.

The Economist 기사

CNN Business: Big Retail's cautious forecasts are spooking Wall Street 대형 소매 기업들 암울한 전망으로 월가 “술렁”

- Walmart, Home Depot 등 거대 소매 기업들이 향후 1년간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소비를 더 줄이고 서비스에 더 많은 소비를 할 것이라는 신중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던 투자자들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 지난주 미 인구 조사국의 자료에 따르면 1월 소매판매액은 3% 증가한 6천 9백70억 달러로 2021년 3월 이후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며 미국 소비자들이 건재함을 보였다. 소비자 지출은 미국 국내총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며 미국 경제를 지탱해왔다.
- 그럼에도 Walmart, Home Depot CFO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해 신중한 전망을 보였다. WalletHub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2022년 동안 3천 9백 80억 달러의 신규 부채를 추가했는데, 1년 전보다 약 4.5배 더 큰 수치이다.

CNN Business 기사

CNN Business: Microsoft enters 10-year agreement with Nvidia and Nintendo in fight to save Activision deal 마이크로소프트, Activision Blizzard 인수 위해 Nvidia, Nintendo와 10년 제휴

-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기 게임인 Call of Duty의 제작사 Activision Blizzard의 6백90억 달러 규모 인수를 위해 Nvidia, Nintendo와의 10년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 당초 마이크로소프트가 Activision Blizzard를 인수하고자 했을 때 EU 규제 당국과 경쟁사들이 비디오게임 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정밀 조사를 받은 바 있었다.
- 하지만 이번 제휴 계약을 맺는 데에 성공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Activision Blizzard의 인수를 마무리 하는 대로 Nvidia의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에 Xbox PC게임을 도입하고, Call of Duty의 최신 버전을 닌텐도에 탑재할 예정이다.

CNN Business 기사

CNBC: Target bets on e-commerce by investing \$100 million in hubs to speed up delivery**Target, 공급망 허브에 1억 달러 투자...전자상거래 시장에 베팅**

- Target이 이번 주 수요일 발표를 통해 온라인 주문 상품의 배송 비용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급망 허브 네트워크 구축에 1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 이번 투자로 Target은 2026년 1월 말까지 물류 선별 센터를 최소 15개 구축하고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 한편 Target은 과도한 재고와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자 상거래 시장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였다. Target의 온라인 매출은 10월 마감된 최근 분기에 1% 미만 증가했는데, 전년 동기 29% 성장한 것과 대조되는 성과이다.

CNBC 기사

[보고서]**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뉴욕증시, 금리공포 부활에 올해 최악 하루...나스닥 2.5%↓"**

'대통령의 날' 연휴를 마치고 나흘 만에 문을 연 미국 뉴욕증시가 다시 살아난 금리 공포 속에 크게 후퇴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97.10포인트(2.06%) 떨어진 33,129.5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81.75포인트(2.00%) 하락한 3,997.3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94.97포인트(2.50%) 급락한 11,492.30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 지난해 12월15일 이후 두 달여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